

경순의 잘못

황시운

소설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그거 말고는 꿈쩍을 안 하려고 든다니까. 이 놈의 자식이 아주 내……”

피를 말린다, 고 말하려던 경순이 말끝을 흐리며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무람없는 사이라도 남 앞에서 가뜩이나 딱한 아들을 깎아내리는 건 못할 일이었다. 더구나 자신의 비루해진 처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기도 했다.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미경과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어울려왔던 터라 달라진 현실이 더욱 비교가 됐다.

“그래. 알지, 알아. 썩어 문드러지는 자기 속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미경이 커피잔을 달그락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경순은 안쓰러운 표정을 짓는 미경이 문득 아니꼽게 느껴졌다. 안 그래도 두 아들에 며느리들 자랑까지 줄줄이 늘어지던 미경이고 보면 더더욱 그랬다. 큰 며느리가 성과급 받은 걸로 냉장고를 비스포크로 바꿔주었다고 했다. 무슨 놈의 냉장고 가격이 오백만 원이 넘어서 기함을 할 뻔했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끝에 아들의 흥이나 보고 있는 자신의 경솔함이 한심하기만 했다. 경순이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자꾸 한숨 쉬지 마, 자기야. 한숨 쉬어 버릇하면 들 어올 복도 멀리 달아난다잖아.”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 텐데, 경순은 이번에도 배알이 뒤틀렸다. 작은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해줬다는 안면 거상 수술이 자리를 잡은 미경의 얼굴이 이전보다 죽히열 살은 어려 보이는 것도 거슬리기만 했다. 경순이 눈을 내리깔며 커피잔을 들어 후루룩 들이켰다. 커피가 아직 뜨거워 순간 입천장과 목구멍이 짹 달라붙는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다. 뜨거운 것도 참고, 아니꼬운 것도 참고, 일

단은 다 참아야 했다. 어쨌든 아쉬운 쪽은 경순이었다.

“사람은 믿을 만한 거지?”

경순이 한 번 더 다짐을 두듯 물었다. 미경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니까 그러네. 자기 나 못 믿어?”

미경의 말에 경순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잘난 체를 좀 해서 그렇지, 여러모로 사람이야 믿을 만했다. 미경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겠지. 경순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마음을 꼭 누르며 생각했다.

“어, 자기야. 여기.”

막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에게 미경이 손을 들어 보였다. 늘씬한 체형의 여자가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다가왔다. 보는 눈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경순은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아들 강이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아 괴로운 마음을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퇴근하고 돌아와 집안일에 강이의 목욕과 용변 처리까지 해주다 보면 누굴 만나 하소연할 틈도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걸, 우연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서 마주친 미경에게 지나는 말처럼 털어놓았던 것이 일의 시작이었다.

“그럴 거면 일한 값이라도 제대로 쳐서 받아야지.”

“내 새끼 뒤치다꺼리하는 데 누가 일한 값을 쳐준다고.”

“아휴, 자기가 이렇게 순진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놓인다, 정말. 그렇게 곧이곧대로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알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경순이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묻자 미경이 가볍게 혀를 차며 목소리를 낮추라는 시늉을 했다. 경순은 공연히 얼굴까지 붉어진 채 혀로 입술을 축였다.

면접을 보러 오는 활동지원사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이의 덩치가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였다. 사실 경순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순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었다. 경순의 이용자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매일 아침 이용자가 출근을 하고 난 뒤, 빈집으로 출근해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해 놓는 것까지가 경순의 일이었다. 이용자가 예민한 편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대청소도 해야 했지만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처음부터 신체 지원 없이 가사 지원만 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선택한 일이었다. 이용자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것도 마음에 꼭 들었다. 문제가 생기거나 전달사항이 있을 땐 전화 통화를 했다. 같은 값이면 덜 부담스럽고 조금이라도 쉬운 일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었다. 백 킬

로그래를 훌쩍 넘는 거구 이용자의 신체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사 찾기가 쉬울 리 없었다. 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니 집안 살림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강이의 목욕을 돕고 대변을 받아내는 일은 고스란히 경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순은 수 년 전에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받았고 양쪽 무릎엔 인공관절 수술도 했다. 최근 들어선 손목과 어깨 통증도 예사롭지 않았다. 어쩌다 일을 하겠다고 계약했던 사람도 금방 관두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센터에서도 이전 사람을 쉽게 소개해주려 하지 않았다.

남들은 마비가 되고 나면 근육이 빠지면서 살이 내린다던데 강이는 나날이 덩치가 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사고 이후 강이는 모든 욕망이 거세된 채 식욕만 살아 날뛰는 사람 같았다.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는지, 매일 치킨이 먹고 싶다, 피자가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요구가 끝이 없었다. 처음엔 경순도 안쓰러운 마음에 원하는 음식들을 실컷 먹게 내버려두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겁이 나기 시작했다. 강이의 덩치가 커져도 너무 커졌던 것이다. 먹는 양은 점점 늘었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으니 건강 역시 급속도로 나빠졌다. 아직 삼십 대인데도 벌써 당뇨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에 지방간까지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조금만 덜 먹고 더 움직여보자고 경순이 수 없이 설득했지만 강이는 제 방에 처박힌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강이가 장애를 입은 초반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아예 모른 채 경순 혼자서만 안달 복달하며 빠르게 까부라졌다. 이러다 그때로 영영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지, 경순은 겁이 났다. 그때는 나이도 젊었지, 이제는 정말이지 힘에 부쳤다. 사실, 누군가 집안일만 좀 거들어준다고 해도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것보다야 분명히 나을 터였다. 그렇다면 애초에 가사 지원만 해줄 활동지원사를 구하면 되겠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본인부담금이 들어갔다. 경순 에겐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였는데, 지금 형편에 그 돈을 들여서 신변처리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 한 집안 청소나 말길 사람을 구하는 게 맞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경순은 또다시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출근해 오후 2시면 퇴근을 하는 경순이 받는 급여는 13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이틀에 한 번 두 시간 가까이 걸리는 강이의 목욕과 세 시간씩 걸리는 대변 뒷수발을 들어야 해서 매일 출근은 불가능했다. 일단은 하루 걸러서라도 오후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구해 달라고 센터에 부탁은 해 둔 상태였다. 운 좋게 일을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강이의 장애연금 37만 원과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부터 받게 된 배우자 연금 30만 원, 그리고 경순의 급여가 수입의 전부였다. 올해로 예순다섯이 되었지만, 경순은 노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깔고 앉은 집값이 오른 탓이었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 돈을 손에 쥌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게 왜 노인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경

순으로선 이해가 안 됐지만, 별다른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해가며 장만했던 집이 노년 생활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집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집은, 경순도 경순이었지만 강이의 미래이기도 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받기 시작한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강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 역시 다달이 늘고 있었다. 더 나이가 들어 활동지원사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경순 자신은 그렇다 쳐도 강이만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고 숨만 턱턱 막혔다.

미경이 처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경순은 겁이 나는 한편 안개가 자욱하던 머릿속이 맑게 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속도 형식적이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별 문제없이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바우처를 부정수급 하고 있다는 말은 소심하지만 한 경순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크로스로 일을 맞바꿔 하는 장애인 부모들도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당장 맞춤형 자리 구하기가 힘들지. 바우처 시간이 길 땀 두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등록만 해놓고 한 사람이 다 받아 가기도 하고. 아닌 척해서 그렇지, 다들 이렇게 저렇게 머리들을 쓰면서 살고 있다니까. 사실, 내가 안 먹으면 그냥 버리고 말 돈인데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바보지 뭐. 안 그래?”

미경의 말엔 지금껏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것 같아 괜스레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되는 거였다. 아무리 사는 게 펑펑해도, 몇 년씩 안 걸리고 잘 타 먹는 사람들이 싸고 싼다고 해도, 경순은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경순은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리는 족족 남의 눈에 띄어 빈축을 샀기 때문이다. 무단 횡단도 못했다. 시도만 하면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그놈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라도 선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물론, 극단적으로 소심한 성격도 한몫했다. 선 밖으로 발끝만 내밀어도 가슴이 두근대고 겁이 나서 지레 초주검이 되기 일쑤였다. 경순은 이번 일을 벌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따름이었다.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활동지원사가 출근하는 걸로 기록만 남기면 센터 모르게 급여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했다. 강이의 바우처를 급여로 환산하면 이백만 원이 조금 못 됐다. 그 돈에서 소개 받은 활동지원사 선생에게 오십만 원을 떼어줘도 경순의 급여보다 많은 돈이 남았다. 그 정도면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터였다. 어차피 사람이 안 구해져서 경순이 오롯이 감당해온 일이었다. 설사 구해진다 해도 오래 못 갈 게 뻔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꼭 감당하면서 바우처 급여라도 타 먹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어서지,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누가 해도 할 일에 대한 보상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찾아 받는 것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든 경순의 손이 벌벌 떨렸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릴 줄은 몰랐다. 몇 년씩 아무 일 없이 잘 해먹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는데, 고작 석 달 만에 걸릴 건 뭐란 말인가. 어쩌면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경순은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뭐래요?”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강이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경순이 고개를 들어 멍한 얼굴로 강이를 바라보았다.

“환수 결정이 났다고 그러네.”

경순의 말끝에 한숨이 딸려 나왔다. 환수금액은 거의 육백만 원이나 되었다. 그 돈은 또 어떻게 구하나. 평생 아등바등 살아왔는데도 말년에 단돈 육백만 원에 벌벌 떠는 처지가 한심스러워서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강이의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사고 당시 강이의 생명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 2억이 있긴 했다.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강이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경순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더 나중에 경순이 죽고 나서 강이 혼자 남겨졌을 때, 강이가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했다. 결국 집을 줄여가며 살다 막다른 길에 이를 공산이 컸다. 또다시 한숨이 내려 했다. 자꾸 한숨을 쉬어 버릇하면 들어올 복도 멀리 달아난다던데. 경순은 강박적으로 미경의 말을 떠올리며 차오르는 숨을 억지로 눌러 삼켰다.

“어떻게든 되겠지. 넌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경순이 그때까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말했다. 강이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을 달싹였지만 끝내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다.

“대변보자. 방에 가서 컴퓨터 끄고 매트로 나와.”

경순이 매트 위에 늘어놓았던 물건들을 주섬주섬 치웠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강이가 휠체어를 밀고 매트 쪽으로 다가와 매트 옆에 휠체어를 붙였다. 경순이 허리를 굽혀 강이의 두 다리를 휠체어 발판에서 차례로 내려놓았다. 그리곤 강이의 등 뒤로 가서 바지뒤춤을 단단히 그러쥐었다. 경순이 하나, 둘, 셋 구령을 붙여 강이와 동시에 강이의 무거운 몸을 들어올렸다.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찌릿한 통증이 감전되듯 타고 올라왔다. 이번 일로 앞으로 이 년간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적어도 이 년 동안은 꿈쩍없이 강이에게만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년 후면 경순의 나이 예순일곱이 된다. 예순일곱은 예순다섯보

다 얼마나 더 까부라진 나이일까. 경순은 잠시 생각하다 체머리를 흔들었다. 이 년 후보단 당장 돈 육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급했다. 인생이란 게 마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장애물 달리기 같다고, 경순은 강의의 늘어진 엉덩이를 벌려 항문에 좌약을 밀어 넣으며 생각했다. 미경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일이 이 지경이 된 걸 뻔히 아는데, 설마 모른 척이야 할까. 경순은 자신보다 열댓 살은 어려 보이는 미경의 팽팽한 얼굴을 떠올리며 습관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